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2호 (부제 제2314호) 주제99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멸적의 기상과 용맹을 안고 적들의 반공화국도락활동을 단호히 짓부셔 강성대국건설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대중적영웅주의는 선군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정신, 투쟁기풍이며 오늘의 대고조전군의 승리를 위한 힘있는 추동력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양양된 혁명적기세를 순간도 늦추지 말고 필승의 신심도높이 모든 대고조적전장에서 대중적영웅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를 타산한 영웅조선의 기상을 안고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장국을 일떠세웠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던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혁명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강성대국의 령명을 안아왔다.

오늘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결승주로를 따라 폭풍적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세를 하늘을 찌를듯이 높여 나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것이적인 사면들과 최첨단과학기술의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나라의 이름은 곳곳마다 천지개벽의 회한한 현실을 펼쳐나가는 용감무쌍한 시대의 선구자, 영웅들의 대부대가 수없이 늘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신념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기상이다.

오늘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결승주로를 따라 폭풍적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세를 하늘을 찌를듯이 높여 나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것이적인 사면들과 최첨단과학기술의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나라의 이름은 곳곳마다 천지개벽의 회한한 현실을 펼쳐나가는 용감무쌍한 시대의 선구자, 영웅들의 대부대가 수없이 늘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신념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기상이다.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불패성의 상징이며 천만군민의 영웅적위훈의 근본원천이다.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가야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고조의 위대한 령도를 창조해 나가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우리 시대 영웅성의 최고귀감을 보고있으며 장군님의 강령적정신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양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 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진, 전진, 전진,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기어 사자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불꽃이다.

조선민주주의적정신에 용감성이 결합되면 무서울것이 없다. 남들이 백결을, 천결을 걸은것을 한 걸음에 뛰어넘어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승전고를 기어 올리려야 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배심과 강인담대한 의지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파고들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조국대대의 선의의 도는 민족적자존심이다. 인민의 기치밑에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발사국으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근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확보하며 살아야 하는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자랑스러운 위훈을 높이 받들어나가자.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해나가야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대고조의 위대한 령도를 창조해 나가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에서 우리 시대 영웅성의 최고귀감을 보고있으며 장군님의 강령적정신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양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 나가자.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진, 전진, 전진,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이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중적영웅주의는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기어 사자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불꽃이다.

조선민주주의적정신에 용감성이 결합되면 무서울것이 없다. 남들이 백결을, 천결을 걸은것을 한 걸음에 뛰어넘어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승전고를 기어 올리려야 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배심과 강인담대한 의지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파고들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조국대대의 선의의 도는 민족적자존심이다. 인민의 기치밑에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발사국으로 존엄떨치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근기,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확보하며 살아야 하는 온 나라에 대경사를 안아온 자랑스러운 위훈을 높이 받들어나가자.

주체화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 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맡은 자기 땅에 붙이고 높은 세계를 내다보며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세상을 들끓여나가는 과학기술적성과를 려이 이룩하여야 한다.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휘시키고 세기대에서 탐욕적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경회국 《산울림》과 같은 시대의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송풍기가 되어 대중적영웅주의를 힘있게 추동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선원이며 대중의 교양자, 조직동원자이다. 일군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 나아가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고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비상한 혁명적개력과 완강한 실천력, 담대한 책임과 높은 실력을 가지고 오늘의 영웅적대군을 힘있게 선도해나가야 한다. 우리 일군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뜻과 영이 통하고 담력과 배양이 맞는 《영웅적인 사나이》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언제나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취적인 사고방식과 사업태도를 지니고 최첨단을 향하여 세기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일군, 부닥치는 난관을 뚫어 나가는 열광하게 뚫고나가는 담이 크고 전격력이 있는 일군, 이신작적의 모

범으로 대중을 혁명적대고조제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술, 돌격의 나팔수, 이런 일군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혁명의 송풍기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대중적영웅주의가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자면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천만대중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심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애국적신심을 높이 발휘한 전선대영웅처럼 살며 투쟁하도록 적극 이끌어주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자대중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참신하고 폐기되고 박력있는 경제성동의 북소리를 더욱 힘차게 울려나오게 하자. 당원들은 영웅적소행들과 혁신적성과들을 널리 소개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투쟁과업은 방대하지만 우리 로동하고 세련된 명도고 있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천만군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이 있는 한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대고조전군수도를 높이자

### 모범 선동원 대렬이 늘어 난다

우리 당의 사상중시로선을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기수가 되어 능숙한 선전선동활동으로 대중을 이끌어가고있는 미더운 당조급선전일군들 가운데는 새로 선군시대 모범선동원대렬에 들어선 선동원들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전선동사업은 개혁신을 위한 투쟁에서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여러가지 질 좋은 편직물을 생산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여러가지 질 좋은 편직물을 생산

편직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혁명병도의 길에서 몸소 찾아주신 강제편직공장, 선교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5월에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강제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질 좋은 편직물과 양말생산을 더욱 다그치면서 동근기적직물을 비롯하여 편직물의 가지수를 늘려가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는 일별, 월별로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 과정에 수백명의 상반년계획완수자가 배출되었다.

### 효능높은 농업용살균제 개발

농업과학원에서 최근 농업과학원 과학자들이 효능높은 농업용살균제를 새로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기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대담투쟁을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가리수를 늘이는데 기여



선교편직공장에서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질 좋은 편직물과 양말생산을 더욱 다그치면서 동근기적직물을 비롯하여 편직물의 가지수를 늘려가고있다.



#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라!

(공동구호에서)

## 전투적 기상 나래치는 동력기지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중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청년직장 2직장, 하차, 연료직장 등 기업소의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좋다.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대고조의 거세찬 불길로 미제와 리명박역적배당의 광란적인 전격소동을 짓밟고 개리본 결사의 깃발을 차넘기고 있다.

어제 그렇지 않으랴. 북창이 세차게 끓여야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릴수 있다는것을 자각하고있는 이곳 노동계급이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전력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해 파강한 공격전을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급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북상화력발전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전기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당면하여 추진중에 있는 발전설비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는 동시에 보수부문의 직장, 작업반에서 장비철에도 발전설비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설비보수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그리하여 5월에 이어 이달에 들어와서도 발전설비대보수에 자량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한계 단위씩 맡고 내려가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장조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최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어려운 조건의 일군들에게는 격려와 격조로써 격려를 해주었다.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발전설비의 가동대수를 늘리고 설비대보수준투를 다그쳐 자량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상반년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요즘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총공세의 요구에 맞게 대고조와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연합기업소 참모부의 일군들은 생산정형과 설비관리, 기술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공경적인 모범을 찾아 일반화하는 한편 현행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운영호기대수를

높이기 위한 작전을 펼쳐놓고 있다. 당면하여 추진중에 있는 발전설비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는 동시에 보수부문의 직장, 작업반에서 장비철에도 발전설비들이 만가동할수 있게 설비보수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다. 그리하여 5월에 이어 이달에 들어와서도 발전설비대보수에 자량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한계 단위씩 맡고 내려가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장조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최선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어려운 조건의 일군들에게는 격려와 격조로써 격려를 해주었다.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여 발전설비의 가동대수를 늘리고 설비대보수준투를 다그쳐 자량한 성과를 거두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상반년전투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요즘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총공세의 요구에 맞게 대고조와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연합기업소 참모부의 일군들은 생산정형과 설비관리, 기술관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공경적인 모범을 찾아 일반화하는 한편 현행생산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기본을 두고 운영호기대수를

생산을 높여나가고있다. 대고조의 불길로 적들의 무모한 반공파괴모략행동을 짓밟고 개리본 결사의 깃발을 차넘기신 이 직장들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직장들에서는 조직공포, 운전공포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설비관리를 잘하도록 하고있다. 보이라조작공들은 당당기사와의 긴밀한 령계밑에 열심을 구역 줄이기 위하여 보이로운전조작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하여 열영에 있는 호기마다에서는 만부하의 동음이 기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다른 직장들에서도 가동중에 있는 발전설비들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기술운용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가고있다. 또한 《2호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장조원》의 불길을 세차게 피어올려 설비를 세정처리 예초하고 있다.

하차직장과 연료직장, 전기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과 보수부문 노동자, 기술자들도 기세를 올리고있다. 하차직장과 연료직장의 노동자들은 설

비들을 책임적으로 정비하여 들어온 석탄을 제때에 부리고 고 처리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전기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많은 파제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더 잘하기 위한 사업을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술공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창조적의욕과 힘을 합쳐 어려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발전설비대보수를 다그치면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명 일

##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고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잘 관리운영하여 전력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총공세의 진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는 각직 대규모수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5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로 중산의 동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만들고 6월에 들어와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매일 계획보다 많은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량을 떨치고있다.

각직 수력발전소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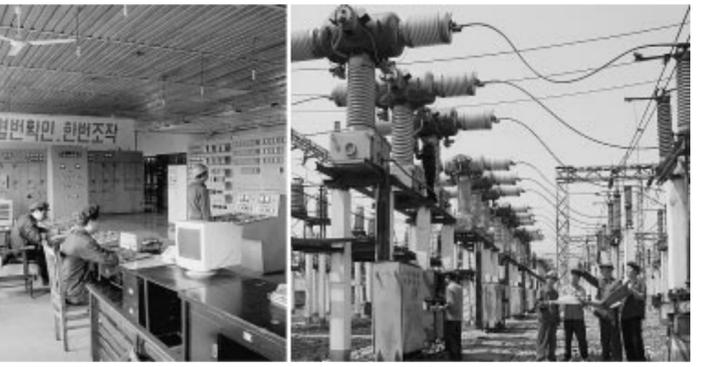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으로 떨쳐나 날에 날마다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각직 수력발전소 노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수력발전부분의 일군들은 전투현장에 내려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물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높은 수위, 높은 효율을 보장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나가면서 노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의욕과 힘을 합쳐 수력구조물과 설비보수준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여러 발전소들에서 수력구조물과 설비보수과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더 많은 발전기들이 전력생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중산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허친강발전소와 부전강발전소, 수송발전소와 서두발전소의 노동계급이 중산투쟁의 앞장서서 특출한 활약을 하고있다. 이 발전소들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큰 힘을 넣어 발전기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5월에 이어

6월에도 계획수행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장지강발전소와 위원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설비보수대책을 앞질러가며 세우고 발전설비들의 운영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함으로써 매일 많은 전력을 팡팡 생산해내고있다.

태천발전소에서는 령령을 총동원하여 수력구조물보수를 다그쳐 제기된 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생산정형의 동등성을 높이 올리고있다. 대동강발전소와 강계천발전소, 장진강발전소의 노동계급도 경제적발전과 전력생산에 앞장서서 많은 전력을 보내줄 발같은 일념을 안고 중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승리는 과학적이라는 필승의 승리와 확판에 넘쳐 태형신, 대박의 열풍을 세계에 울려나가고있는 각직 대규모수력발전소 전력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전력을

자강도중수발전소관리국 아래 전력생산자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자강도안의 중수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급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자강도안의 중수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급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자강도안의 중수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이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급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 현지도 비약의 숨결 높취는 일러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운반직장에서

여기는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전력생산투쟁으로 들끓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운반직장이다.

하차장에 힘찬 기적소리가 울려나오면 석탄을 무드기 실은 화차들이 줄지어 들어선다. 화차들의 랑크에 배치된 기계장들이 기다렸다는듯이 강철팔을 내밀어 화차에 용을 쓴다. 마지도 소형굴삭기를 편상해하는 기계상의 운전실에서 운전공들이 능숙한 조종으로 화차우의 석탄더미들을 외곽외곽 힘어낸다. 김태현, 김영공동무 비롯한 하차작업반원들이 일순마다에 혁신의 불꽃을 날려 잠간사이에 화차들이 가득 실려들어 석탄을 담궜다.

하차장에서는 급관기들이 부지런히 돌아가는데 베프폰이 들리는 석탄을 들뜬들뜬 담야고 보이라를 향해 물결처럼 쉬임없이 흘러간다. 물결에서는 가동 안영동동무가 설비들의 상태를 간간히 살펴대고

## 원산청년발 수력구조물관리 힘 넣어 중추수들에

전소의 일군들은 대한 정점을 과 전력생산자들이 남조선피억력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의 모략책동이 발각되는 강경하고있는 조성된 정세로 물량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서 찾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고있다. 특히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점검과 보수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부족점을 제때에 퇴치하여 전력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력구조물관리를 맡은 노동자들은 열적의 기세를 타고 도

## 위훈을 떨쳐가는 《김혁청년돌격대》

김혁청년발전연합기업소에는 미더운 청년집단이 있다. 생산과 개건, 보수투쟁의 어려운 모험마다 남뉘러 뛰어들어 돌파구를 열여제기는 청년들, 그들이 다룬아닌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다.

지난 기간 4호해란로개건과 3호용광로 교체비치기 등 힘겨운 작업들을 맡아 본래이게 해제진 돌격대원들은 지금 오리공정현대공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온 전세계 대들의 훌륭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는 이들에게는 불가능도 두려움도 없다. 오직

## 대중의 심리를 알고 마음을 움직일 때

만경대승용차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업원들도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도록 교양사업을 짜고들지 못하였던것이다. 원인이 명백해진 이상 그 답도 명백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백두산이 낀 위인이시다. 중업원들이 늘 백두산을 안고 살도록 하자! 초급당위원의 생각은 사업소 일군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일마루 부문당에서, 당세포 비서들과 모범적인 중업원들로 조직된 당세포가 백두산으로 향하여 갔다. 그로부터 일마루에는 모자이크벽화 《백두산마루》가 구내입구에 건립되었다. 벽화 《백두산마루》 주변에 나무를 심고 백두산천지의 물로 자라온 나날 중업원들의 마음도 여색게 자라났다.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없는 백두의 이철적정신을 체하는 장군님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팡팡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적덕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 자부심에 심어준 불씨

사업소중업원들에게는 남다른 열과가 있다. 하루사업은 백두산마루를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서 맹세 다지는것으로 시작하고 하루사업총화를 백두산일영도향적벽화에서 하곤 하는것이다.

당을 받드는 마음에 목숨은 없었는가. 누구나 이렇게 묻고 대답하며 하루사업을 열성하고 총화하는 사업 원들이다. 열과가 생겨나면서부터 중업원들속에서 《백두산을 안고 달리는 유행길》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말하자면 《백두산마루》에서 시작하여 《백두산일영도향적》에서 하루사업을 총화하는 유행길이 바로 《백두산을 안고 달리는 유행길》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초급당비서로 임명된 당시 백년현동무는 생각이 깊었다. 인민경제계획수행,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 물질적도대 등 모든것이 융합된 수준에 이르러 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모든것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하였다. 그러자면 무엇을 중시하고 리로 틀어쥐어야 하는가. 명백한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달하는것이였다.

그러면 대중의 마음을 붙들수 있는 불씨는 무엇인가.

## 시절에 살자

계획은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생각보다 일자리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초급당위원은 오랜 대대장, 중대장들과 이야기해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았다. 운전사들의 투쟁이라는것이 있었다. 건설이라는것이 간단한 것이었다. 건설 일에 힘도 마음도 합쳐야 할데도 개업일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운전사들이 모두 모이는것이 1년치고 몇번이나 되었는데 하는것이였다.

개업일수행에 인이 박힌 승승장구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초급당위원은 생각이 깊어졌다. 불씨는 무엇이어야 할지였다. 불씨는 실존이 아니라 반화하자고 한 초급당위원회의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 《신비로운 조선의 김정일령도자의 예술인생》

중국의 《인물주보》 3일 부가 《신비로운 조선의 김정일령도자의 예술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머리글에서 얼마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과 매를 같이하여 베이징에서 우리 나라 피바다가 국단기 창조한 가극 《홍루몽》 공연이 진행되는데 대해 전하면서 가극은 중국명작에 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수심간에는 결한 두터운 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것으로서 김정일령도자의 지도에 의해 새롭게 완성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혁명적가정의 예술친척》라는 소제목에 달고 백두산밀영에서 탄생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예술분야에서 놀라운 천품을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이에게서 그때 벌써 거의 모든 혁명가들을 다 배우시어는뿐 아니라 품급으로 자유롭게 연주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 출판물은 《김정일령도자의 비상한 음악과 음악적열정을 따르시는 그의 음악적천품에 대해 혼란할 수 없다.》고 평하였다. 또 신문은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체험하신 모든 현실들은 그의 예술창작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고 하면서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부모님들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담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조국의 품》, 《나리 어머니》를 지으시는데 대하여, 특히 《축복의 노래》에 깃든 감명깊은 사연에 대하여 가사와 함께 상세히 소개하였다. 신문은 《수심간에는 결한 가극과 인연》이라는 소제목에 달고 우리 나라 예술인들이 형성한 가극 《홍루몽》이 중국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데 대해 전하면서 근 반세기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조선판 《홍루몽》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이 가극을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신문은 《특출한 영화 (연출가)》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조선에서 영화는 가장 주류는 대중교양수단, 중요한 사상선전수단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화창작사업을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영화에 조그마고 깊은데 대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면서 나라의 영화예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예술적천품은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는 남애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이에게서는 백두산창작단을 창립하시고 김일성주석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모소 창작하신 고전적명작 《나리》를 영화로 옮기는 사업이 이루어지셨다. 이에게서는 촬영현장에 자주 나가시어 창조사업을 지도하셨다. 어떤 때에는 창작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시면서 영화문학과 연출대본을 가필완성하시였으며 배우들과 연기, 형상, 촬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편집실에 가서 직접 영화를 편집하기도 하셨다. 그의 지도밑에 창작된 영화들에는 《꽃피는》, 《꽃피는 처녀》, 《꽃피는 마을》, 《한녀학생의 일기》 등이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화창작에서 중요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고 집대성하신데 기초하여 1973년 4월에 고전적명작 《영화예술론》을 발표

하시었다. 이 로작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연술과 배우, 촬영, 미술, 음악 등 각 측면과 함께 영화와 문학,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히시었다. 신문은 《위대한 시인의 품모》라는 소제목에 달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음악리론에 정통하시였을뿐 아니라 음정에 대해서도 비범한 식별능력을 소유하고계신다고 하면서 이에게서 어느 한 예술단의 편린악연주를 지도하시다가 한 악기의 음정이 반음 틀린것을 지적해 주시므로 연주자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한 사실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어려서부터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예술적으로 감수하시었다. 이에게서 학창시절에 쓰신 여러편의 시는 사람들의 경란을 자아내고있다. 1960년 9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총대창에 입학하시었다. 첫 등교날 대학구내의 퉁남산마루에 오르신 이에게서는 자신께서 지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읊으시었다. 당시 이에게서는 20살도 채 안되시였지만 시에 지대한 재

포부를 그대로 담으시었다. 신문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가사도 적지 않게 쓰시었다. 그중에는 조선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 《조국의 품》도 있다고 하면서 가사를 소개하였다. 신문은 《연영기를 맞이한 조선의 문학예술》이라는 소제목에 달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지도밑에 조선의 영화예술인들은 1960년대 중엽에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개척하였다. 《피리》, 《꽃피는 처녀》 등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연이어 영화로 옮겨졌다. 그중에서 예술영화 《꽃피는 처녀》는 1972년 제스고르벤스코(당시)에서 진행된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받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대의 요구에 비추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창작 완성되었다. 조선의 문학예술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김정일령도자재의 공헌에 이룩된것이다. 문학예술의 번영과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이에게서는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 《연극예술에 대하여》, 《무용예술론》 등 문헌예술리론저서들을 발표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필승불패의 당**

오늘 조선로동당은 존엄높고 위대한 당으로, 자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희망의 동태, 승리의 기치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당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세계에 위용떨치는 조선로동당의 위대성, 그것은 곧 인류의 태양으로 청송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존엄과 등장이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크리시사회주의 당 최고리사회 위원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평등을 받아왔기에 조선인민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자주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정당들은 조선로동당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있다. 당의 평등함에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은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걱정

을 명도하시는 전기간 로선과 정책들을 독창적으로 세우시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인민은 모든것을 자기 식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으로 된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적대세력의 대조선압살책동은 여지없이 분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세계의 각계각층 인사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당의 사상적특성 통일단결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철의 당, 가장 규율되고 전투력있는 당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이 이렇듯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일찍부터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길로 평도하여오신데 그 비결이 있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배수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혁명정당으로 이끌고계신다.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향도하는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위해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당이다.》 아프리카의 인사는 조선로동당은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이 오직 승리를 이룩하여왔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일심단결이라는 필승의 무기를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영국혁명적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대변인 (당수)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조선인민은 당건설사업에 쌓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그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정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은 오늘 사상의 강국, 정치대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평도와 때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인민은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어가고 있다. 그의 현명한 평도 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로씨야정당과 에파도르단체가 미국과 리명박역적배당의 반공화국모략사동에 대항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에 연대성을 표시하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쫘쫘로스 크-나-아무에서위원회는 2일 하바롭스크주에 우리 나라 대표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반동들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겹고 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도발을 로골화하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와 인민에게 연대성을 표시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서 로씨야 협조자들 크-나-아무에서의 침략들과 인민들은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적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의 온갖 공과를 영예롭게 이겨내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회담에서 에파도르 파관다협회는 5월 28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미제의 하수인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전진하는 조선반도와 군대, 인민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조선인민을 승리애로 이끄는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우리는 대조선적대정책을 추구하며 저들의 피의인 리명박과 같은 자들을 끼고 《국제혁명》으로 자처하는 미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판관다조선협회 위원장 안머 씨가 아오가 미국과 남조선피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하여 5월 28일 코인포름 통보사 인터네트잡지에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리명박배당이 꾸민데 모략책동일것이다. 지금 세계는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천안》호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지어 남조선배우에게서도 이 사건의 《진실성》을 의심하고있다. 그러나 리명박배당은 이 모든 여론을 무시하고 한사코 《천안》호 침몰원인을 조선과 관계시키려고 책동하면서 도적이 배를 드는 격으로 조선에 대한 《조선의 이회공적》을 남조해내고

결과가 정당하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 이면 리우도 없었겠다.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가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통일운동을 한사코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여론이 들끓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리명박배당의 반공화국적대시책등으로 하여 극도로 격화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과 반통일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의 결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프랑크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은 《천안》호 침몰사건을 조차하고 반공화국책동에 미처 남루고있는 리명박역적배당을 규탄하여 5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의 리명박 《정견》은 《천안》호 침몰원인이 《조선의 이회공적》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남조해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보복》, 《용징》, 《제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모략자료를 가지고 터무니없이 조선을 겹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최악의 상태로 되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진보적평화에 호명평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아합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러한 책동의 즉시적인 중지를 요구하고있다. 프랑크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과 미국 그리고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대조선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당당한 자위전을 행사하려는 조선인민에게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더욱 강화발전되었다고 걱정하였다. 배수열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멸의 혁명정당으로 이끌고계신다.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향도하는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을 위해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당이다.》 아프리카의 인사는 조선로동당은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자그마한 흔들림도 없이 오직 승리를 이룩하여왔다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오늘의 복잡한

속 에 었 기 앵 포 켈 메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의 온갖 공과를 영예롭게 이겨내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회담에서 에파도르 파관다협회는 5월 28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미제의 하수인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전진하는 조선반도와 군대, 인민에게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 조선인민을 승리애로 이끄는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우리는 대조선적대정책을 추구하며 저들의 피의인 리명박과 같은 자들을 끼고 《국제혁명》으로 자처하는 미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판관다조선협회 위원장 안머 씨가 아오가 미국과 남조선피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규탄하여 5월 28일 코인포름 통보사 인터네트잡지에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리명박배당이 꾸민데 모략책동일것이다. 지금 세계는 남조선당국이 발표한 《천안》호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지어 남조선배우에게서도 이 사건의 《진실성》을 의심하고있다. 그러나 리명박배당은 이 모든 여론을 무시하고 한사코 《천안》호 침몰원인을 조선과 관계시키려고 책동하면서 도적이 배를 드는 격으로 조선에 대한 《조선의 이회공적》을 남조해내고

결과가 정당하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 이면 리우도 없었겠다.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가 자기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통일운동을 한사코 장애를 조성하고있는 여론이 들끓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리명박배당의 반공화국적대시책등으로 하여 극도로 격화되었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공화국모략과 반통일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조선의 결연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프랑크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은 《천안》호 침몰사건을 조차하고 반공화국책동에 미처 남루고있는 리명박역적배당을 규탄하여 5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의 리명박 《정견》은 《천안》호 침몰원인이 《조선의 이회공적》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남조해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보복》, 《용징》, 《제재》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모략자료를 가지고 터무니없이 조선을 겹고 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최악의 상태로 되었다. 지금 세계의 모든 진보적평화에 호명평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아합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러한 책동의 즉시적인 중지를 요구하고있다. 프랑크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과 미국 그리고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의 대조선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당당한 자위전을 행사하려는 조선인민에게 확고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 본사기자

## 여 리 나 라 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전시람회 개막

수공예품들이 전람회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로씨야 푸르드간주행정부, 배루 리카르도 벨마중합대학, 배루 리명박군 배루친목회, 배루 조선적혁명활동연구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배루위원회, 배루조선친선문화협회, 나이제리아 리명박군도 협회등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푸르드간주행정부 부장관은 연설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돌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배루, 나이제리아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시람회가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개막되었다. 전람회장들의 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 그리고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람회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들에는 로씨야 푸르드간주행정부, 배루 리카르도 벨마중합대학, 배루 리명박군 배루친목회, 배루 조선적혁명활동연구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배루위원회, 배루조선친선문화협회, 나이제리아 리명박군도 협회등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푸르드간주행정부 부장관은 연설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돌에 즈음하여

##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 만행을 규탄

▲팔레스타인의 유달라 톨루브에서 4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만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1만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단죄하는 글들이 쓰여진 프라카드들을 들고 이스라엘기발을 불태우면서 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였다. ▲세레갈의 다카르에서 4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을 공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수리안인민들

## 불망나니들의 오만무례한 인도주의유린 만행

어떤 변명도 할수 없으며 그 책 악의적인 침대로 벗어날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적반하장격으로 행동하고있다. 사건발생장지 카나를 행각중인 이스라엘수상 테라나후는 이스라엘군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공격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아 자기는 그들의 행동을 《정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리낌없이 했었다. 그의 뒤를 이어 외무상을 비롯한 한 이스라엘각료들도 목격을 통하여 《배에 탄 사람들은 테로지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선단의 항행은 계획되지 않았다.》고 하니 하는 엉터리없는 잡소리를 마구 늘어놓았다. 흑백을 전도하는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키고있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가지지대는 몇해째 지속되고있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봉쇄책동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현재 이지역에서 살고있는 150만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식료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영양부족으로 인한 허약들과 각종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사람들이 푸러로 쓰러지고있다.

## 일본에서 일미공동성명을 반대하여 집회

일본 가고시마현의 도쿠노시마섬에서 5월 28일 일미공동성명을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수많은 각종 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일본정부와 미국이 현지주민들의 사를 무시하고 현의 도쿠노시마섬을 미군훈련기지이전지로 할데 대한 내용이 담긴것을 공동성명

발표한것을 유린해하고있다. 그들은 앞으로 일미공동성명을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립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조택범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